

독감환자 급증… ‘이른 유행’에 ‘이른 주의보’

질병관리청,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36주차 검출률 36.4%… 전국보다 2.2배 높은 수준
21일부터 예방접종중…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정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2025~2026절기·10월 17일)보다 한 달여 앞당겨졌다.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의심)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6주차(8월30일~9월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을 초과했고, 전년 같은 기간(6.6명)의 3.8배를 넘는 수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환자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16.3%로 이전 35주차(12.3%)와 비교해 증가세다. 제주는 인플루엔자 검출률이 전국보다 높았다.

제주는 올해 32주차(8월 2~8일)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42주차(10월 12~18일)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약 10주 빨랐다. 2026~2027절기가 시작된 올해 36주차(8월 30일~9월 5일)에는 검출률이 36.4%까지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3%)의 3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또 전국 검출률(36주차 16.3%)과 비교하면 2.2배 높았다. 인플루엔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7~12세 아동(42.9%)과 0~6세 영유아(33.3%)에서 주로 검출되는 등 유·소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7월부터 검출률이 10% 안팎을 오르내리다 36주

차에 30.3%로 늘어난 상황이다.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된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대상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은 대상자별 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길 바란다”며 “손씻기, 기침·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 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일반고 전환 ‘제주여상’ 창의융합학교로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2027년 ‘사라고’로 새 출발

내년 새 학기부터 ‘사라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남녀공학 일반고로 전환되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AI(인공지능) 교과 등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여상은 내년부터 ‘창의융합학교’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이 지난 9일 개최한 제주도자율학교심의위원회에서 성산고(IB 학교)와 함께 ‘2027 제주형 자율학교’로 신규 지정되면서다. 제주여상은 ‘사라고’라는 교명으로

로 내년 3월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된다. 사라고는 AI 중점 학교로, 학교 인프라와 디지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사회·자연과학·예술을 아우르는 ‘창의융합학교’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로 ‘주제탐구 프로젝트’ 특색과목이 신설된다. AI·정보 7개 교과 중심의 첨단 교육환경이 갖춰지고 단계별 진로·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사라고만의 독보적인 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라며 “교육 방향을 충실히 구현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맞푼 신고로 고통”

정치하는엄마들·피해 학생 학부모 11일 공동 성명
“서귀포교육지원청 학폭위 부당 결정… 불복할 것”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지난해 학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인 가운데 해당 학생이 ‘맞학폭’ 신고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지난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방치 아래 집단 괴롭힘 피해 학생은 보복성 맞푼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월 학교폭력을 주동했던 가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던 피해 학생을 맞학폭으로 신고한 데 이어 이날 피해 학생을 향한 또 다른 학폭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지난 9일 통보된 피해 학생의 맞푼 사건 심의 결과, 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가해 학생의 진술에 따라 피해 학생이 욕설을 했다는 주장 등이 인정됐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한다”고도 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학부모의 자녀 역시 자신을 괴롭힌 가해 학생에게 맞학

폭 신고를 당했는데, 이 사건의 학폭위 결정도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두 건의 맞푼 사안에 대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받아들이 수 없다. 이 결정은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와 구조자(신고자 자녀)를 학폭 가해자로 둔갑시킨 편파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불복 절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어 “잇단 학폭 신고로 피해 학생이 위험하다”며 고의숙 교육감에게 ‘제주도 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사후 지원 즉시 시행, 피해 학생 보호 등을 요구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쉽 없이 돌아가는 스프링클러. 늦더위가 이어진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농경지에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메마른 농토에 물을 뿌리고 있다.

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갈등 일단락 도교육청 등 노조 요구 수용… 파업 중단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아교육진흥원이 현장 근로자들이 의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이후로 심화됐던 노사 간의 갈등이 일 단락됐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유

제주지부(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유지원방과후과정전담사들은 이날부터 시작한 2차 지명파업을 오는 14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당초 이들은 1차 파업(지난 4~10일)에 이어 오는 18일까지 2차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

孔紀2577年(2026年) 추기석전대제 봉행 안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과 가내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음력 8월 상정일(上丁日)을 맞이하여 만세종사(萬世宗師)이신 공부자(孔夫子)를 비롯한 성현(聖賢)들을 숭모(崇慕)하는 추기석전대제(秋期釋奠大祭)를 도내 3개 향교(제주, 대정, 정의)가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 주 향 교	대 정 향 교	정 의 향 교
입제일시	2026년 9월18일(금)(음.8월 8일) 14:00	2026년 9월17일(목)(음.8월 7일) 15:00	2026년 9월19일(토)(음.8월9일) 08:00
대제일시	2026년 9월20일(음, 8월 10일) 08:40 계성사 2026년 9월20일(음, 8월 10일) 10:00 대성전	2026년 9월20일(음,8월10일) 10:00	2026년 9월20일 (음, 8월 10일) 10:00
장 소	제주향교 대성전	대정향교 대성전	정의향교 대성전
초 헌 관	위 성 곤(魏聖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 대 준(文大準) 모슬포수협장	김 성 종(金成鍾) 남원노인대학장
아 헌 관	김 황 국(金黃國)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 승 돌(李承堽) 성균관 전학	송 서 진(宋瑞鎭) 정의향교 훈장
종 헌 관	고 옥 희(高玉姬) 성균관여성유도회 제주본부회장	소 석 도(肖碩道) 대정향교 재장	정 성 추(丁成秋) 정의향교 훈장
동분헌관	김 영 철(金永哲) 제주시 동부지회장	강 창 관(姜昶寬) 성균관 전학	부 순 추(夫淳秋) 정의향교 훈장
서분헌관	한 홍 길(韓弘吉) 제주향교 강사	박 근 수(朴根壽) 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	송 재 길(宋在吉) 정의향교 훈장
장 소	제주향교 계성사	☐ 연락처 : 전 화 064)794-7944 FAX 064)794-6424 2026년 9월 일	☐ 연락처 : 전화(064) 787-2524 전교 : 010-6661-8277 2026년 9월 일
초 헌 관	오 창 진(吳彰進) 제주향교 강사		
아 헌 관	김 두 혁(金斗赫) 제주향교 부전교		
종 헌 관	장 수 익(張首翼) 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 사무처장		
☐ 연락처 : 전화(064) 757-0976 / Fax.(064) 756-0976 2026년 9월 일			
전국향교전교협의회 회장 제주향교 전교 진 인 수 拜		대정향교 전 교 이 윤 명 拜	정의향교 전 교 김 기 섭 拜

협찬 :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